

SK이노, '넷제로' 특별보고서 공개

2030년까지 1.5兆 친환경 투자... 탄소배출 반으로 줄인다

2050년 이전 100% '넷제로' 추진
사업별 세부방안·투자계획 공개
김준 사장 "ESG 경영 완성할 것"

SK이노베이션이 1조5000억원을 투자해 10년 이내에 탄소 순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오는 2050년 이전 100% '넷제로(탄소순배출량 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넷제로 특별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보고서에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별 세부 방안 및 투자 계획 ▲단계별 달성 시기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제품 생산과정(스프록1)과 공정 가동에 필요한 전기 등을 만드는 과정(스프록2)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넘어, 밸류 체인 전반에서 발생(스프록3)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



SK이노베이션이 구체적인 탄소 감축 이행 계획을 담은 '넷제로 특별 보고서'를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0년 안에 탄소 순배출을 50% 감축하고, 2050년 이전 10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넷제로 특별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개하고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을 기준으로 스코프 1,2에서 발생하던 탄소 1243만 톤을 2025년 25%, 2030년 50%를 수준으로 감축 시킨 뒤 2050년 이전 100%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단계적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은 2030년

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 전환, 저탄소 배출 원료 도입 등을 통해 250만톤을 줄이기로 했다. 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 사용 비율을 2025년 25%, 2030년 100%로 높여 18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어 이산화탄소를 공기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포집

해 심해 등에 저장 하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통해 150만톤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탄소 상쇄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50만톤을 추가 감축한다.

대표적 친환경 사업인 배터리 및 소재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축해 2035년 100%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배터리와 소재 사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전력을 2030년까지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전환해 약 82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공장 운영 효율을 높여 약 320만톤을 감축하고 공장 가동에 필요한 동력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해 나간다. 배터리 및 소재 사업은 이 같은 3대 전략을 통해 2035년 기준 약 136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침이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전반적인 사업 밸류체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스코프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의 경

우 관리지표를 수립해 2020년 기준 약 1억3400만톤에서 2030년까지 약 45%, 2050년까지 75%를 줄이기로 했다.

이번 넷제로 특별 보고서 발행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나온 ESG 경영 실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넷제로 특별 보고서 발간은 스토리 테이를 통해 선언한 2050년 이전 넷제로 달성 약속을 구체화해 공표한 것"이라면서 "강력한 실천을 통해 친환경 시대를 선도함으로써 ESG경영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SG위원회 김정관 위원장(사외이사)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과 ESG위원회가 함께 만든 넷제로 특별 보고서는 명확한 목표와 달성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탄소 감축 성과를 CEO 평가 및 보상에 연계한 만큼 이사회 중심으로 이행 과정을 지속 점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ESG 중심 사업재편... 지속가능미래 파트너 진화

SK 지속 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ESG 경영 체계 3대 방향성 제시
사업 투자결정 ESG 성과 반영

SK(주)가 ESG 경영에 3대 방향성을 마련했다.

SK(주)는 20일 지속 가능경영 보고서 '미래를 향한 SK의 새로운 여정'을 발간하고 ESG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성과 중심의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 및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ESG 기반의 미래 지향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진화 모습과 경영체계 혁신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SK(주)는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은 어느 때 보다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업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SK도 ESG 경영 등 새로운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경영활동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표지 /SK

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투자와 사업 부문별로 ESG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목표를 담았다. 먼저 투자 부문은 전문가투자자로서 첨단소재, 바이오, 그린, 디지털 등 ESG 기반 핵심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함으로써 파이낸셜스토리 실행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부문에서는 다년간 축

적한 산업 지식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영역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의 종합 디지털 전환 파트너로 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ESG 중심 경영 체계 3대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이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경영 활동 판단 기준으로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 관리시스템 기반 사회적 가치를 관리하고 ESG 핵심 지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천 시스템도 고도화하며, 투자 결정 과정에 ESG 성과 평가 결과를 지속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SK(주) 관계자는 "이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ESG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함께 ESG 기반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았다"며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단단히 구축하고 변화의 방향성과 의지를 이해관계자들과 진솔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기아, 5세대 스포티지 출시... 3개 모델 구성

(디젤·가솔린·하이브리드)

6년만에 세대교체... 신규플랫폼 적용

기아가 올 하반기 기대작인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형 스포티지를 출시했다. 지난해 현대차가 출시한 4세대 투싼과 SU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0일 기아에 따르면 이번 신형 스포티지는 2015년 기존 모델 출시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5세대 모델이다. 널찍한 실내 공간과 도전적인 디자인, 신규 플랫폼·파워트레인 등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형 스포티지는 공개와 함께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신형 스포티지는 사전계약을 시작한 6일 첫날에만 1만6078대가 예약됐으며, 19일까지(영업일 10일) 진행된 사전계약 대수는 총 2만 2195대를 기록했다.

신형 스포티지 외관은 검정색의 대형 호랑이 코(타이거 노즈) 라디에이터 그릴이 전면부를 꽉 채운다. 후면은 좌우로 연결된 수평형 장식(가니쉬)과 날렵한 리어램프를 통해 안정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실내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기아 신형 스포티지.

가 국내 준중형 SUV 최초로 적용됐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터치 방식의 전환 조작계도 장착됐다.

동력계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1.6 터보 가솔린, 2.0 디젤 등 3종으로 구성됐다. 각각은 최고 출력 230마력·최대 토크 35.7kgf·m, 최고 출력 180마력·최대 토크 27.0 kgf·m, 최고 출력 186마력·최대 토크 42.5 kgf·m의 힘을 낸다.

복합연비(2륜 17인치타이어 기준)는 하이브리드 모델 16.7km/L, 가솔린 모델 12.5km/L이다. 디젤 모델은 L당 14.6km/L의 효율을 갖췄다.

/양성운 기자

SK머티리얼즈, 배터리 소재 시장 진출

美 '그룹 14 테크놀로지' 합작사 설립

SK머티리얼즈가 차세대 배터리 음극재 소재도 만들게 됐다.

SK머티리얼즈는 미국 '그룹 14 테크놀로지스'와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20일 밝혔다.

SK머티리얼즈는 합작사에서 약 604억원을 투자해 75% 지분을 갖는다. 그룹 14는 25% 지분이다. 본사는 한국에 마련할 예정이다.

그룹 14는 2015년 설립한 회사로, 전 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 음극재를 대체할 '실리콘 음극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12월 시리즈 B 우선주 투자 유치로 지분 10.3%, 3대주주로 자리잡고 있다.

실리콘 음극재는 전기차 주행 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로, 가볍고 부피도 작아 IT기구나 소형 항공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SK머티리얼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 OLED 뿐 아니라 배터리 소재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로 추가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SK머티리얼즈 신규사업개발실 박기선 실장은 "국내 소재산업을 이끌고 있는 SK머티리얼즈는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차세대 배터리 소재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고성능 배터리 소재 솔루션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High Value 소재 기술 회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올레드 TV, '불가리 컬러 전' 빛낸다

LG전자 올레드 전시즌 조성

LG 올레드 TV가 다시 한 번 명품 브랜드와 만나 초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20일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는 명품 보석 브랜드 불가리의 '불가리 컬러 전'에 올레드 전시즌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LG는 전시장 안팎으로 올레드 사이니지·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투명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올레드 디스플레이 100여 대를 설치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다른 디스플레이와 차별화되는 올레드만의 강점을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레드 TV의 프리미엄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창대 기자 cd1@